

※ 경락 · 경혈 관련 주요 암기

순번	문제	혈자리
1	정명혈을 지나는 경맥	소장경, 방광경, 음교맥, 양교맥, 위경
2	혀와 연결되는 경맥	심경 별락: 계설본 / 신경: 순후룡 협설본 간경: 락설본 / 비경: 연설본 산설하 방광 경근: 설본결 / 삼초 경근: 계설본
3	인후로 이어지는 경맥	심경, 신경, 위경, 비경, 간경, (+ 소장경)
4	후룡으로 이어지는 경맥	폐경, 위경, 신경
5	입술을 교회하는 경맥 (요순구)	대장경, 위경, 간경, 독맥 임맥, 충맥
6	유주상 入耳中하는 경맥	삼초경[이문], 소장경[청궁], 담경[청회]
7	유주상 頭面을 순행하지 않는 경맥	폐경, 심포경
8	독맥과 수족삼양경 교회하는 혈	대추
9	임맥과 족삼음경이 교회하는 혈	중극, 관원
10	독맥과 양유맥이 교회하는 혈	풍부, 아문
11	임맥과 음유맥이 교회하는 혈	염천, 천돌
12	독맥과 방광경이 교회하는 혈	백회, 뇌호, 도도
13	임맥과 비경이 교회하는 혈	하완
14	독맥과 간경이 교회하는 자리	전정부
15	임맥과 폐경이 교회하는 혈	상완
16	임맥과 간경이 교회하는 혈	곡골
17	충맥과 음교맥이 교회하는 부위	인후부
18	수삼양경과 담경이 교회하는 혈	병풍 (소장경 소속 혈위)
19	충맥과 관련 깊은 정경	신경, 위경
20	양교맥을 구성하는 경락	대장경, 위경, 소장경, 방광경, 담경
21	음교맥을 구성하는 경락	방광경, 신경
22	양유맥을 구성하는 경락	위경, 소장경, 방광경, 삼초경, 담경 + 독맥
23	음유맥을 구성하는 경락	비경, 신경, 간경 + 임맥
24	(생) 入耳中 하지 않는 경맥	방광경, 심포경
25	(생) 貫膈하지 않는 경맥	방광경
26	유주상 간경과 연결된 장부	폐, 위 / 간, 담
27	유주상 신경과 연결된 장부	간, 심, 폐 / 신, 방광
28	복모혈이 自經인 경맥	폐경, 담경, 간경
29	복모혈이 任脈에 속한 경맥	위경, 심경, 소장경, 방광경, 심포경, 삼초경
30	안쪽 복송아뼈 전면을 지나는 경맥	비경, 간경 (신경)
31	안쪽 복송아뼈 후면을 지나는 경맥	신경
32	바깥 복송아뼈 전면을 지나는 경맥	담경
33	바깥 복송아뼈 후면을 지나는 경맥	방광경

34	四海 신체부위, 별칭, 혈자리	신체부위	별칭	혈자리
		뇌	수지해	백회, 풍부
		단중	기지해	아문, 대추, 인영
		위	수곡지해	기충, 족삼리
		충맥	12경지해 혈해	대저, 상·하거허
35	氣街의 위치, 혈자리	위치	혈자리	
		두	백회	
		흉	복모혈, 심수, 폐수	
		복	간수, 비수, 신수, 충맥, 황수, 천추	
		경	기충, 승산	

cf) 삼음삼양 개합추(관합추) 관련 병증.

순번	병증	위치 (삼음삼양)
1	肉節瀆而暴病起	태양
2	氣無所止息而痿疾起	양명
3	骨搖而不安於地	소양
4	倉稟無所輸膈洞	태음
5	脈有所結而不通	소음
6	氣絕而喜悲	厥음

■ 是動病 및 所生病 (醫家들의 해석 不一致)

- 1) 是動病 : ① 病變이 그 經絡自體에서 생긴 原發性인 것  
 ② 本經脈의 經氣運行的 변동으로 인한 病理현상
- 2) 所生病 : ① 病變이 臟腑 疾患에 의해 所屬經絡에 파급된 續發性  
 ② 本經脈이 主治할 수 있는 病證의 범위

臂厥	臂厥	(脈)
(津)	(液)	(氣)
肝厥	脾厥	陽厥
(血)	(筋)	(骨)
	骨厥	

분류 주체	<難經>	滑壽 <十四經發揮>	張介賓 <類經>	張志聰 <靈樞集註>	徐靈胎 <難經經釋>	楊康侯 <十產論>
是動病	氣病(先病) 氣留而不行	經絡 病	經脈의 이상	外因의 所致	本經의 병	在氣, 陽, 衛 病在外
所生病	血病(後病) 血凝而不濡	臟腑 病	陰經_五臟 陽經_主~	內因의 所致	他經의 병	在血, 陰, 營 病在于裏

※ 絡脈 流注 참고 자료 (동의동제한의학 P144)

手太陰之別，名曰列缺，起于腕上分間，並太陰之經直入掌中，散入于魚際。其病實則手銳掌熱，虛則欠欬，小便遺數，取之去腕半寸，別走陽明也。

수태음경의 별락을 열결이라하니 손목 위 분육 사이에서 시작하여 수태음경맥과 병행하여 곧장 손바닥으로 들어가 어깨에 흠어져 들어간다. 이 락맥에 사기가 실하게 되면 손바닥 뒤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고골과 손바닥에서 열이 나고 정기가 허하면 하품을 하고 소변불금 혹은 빈삭하니 손목 뒤 1촌 반 되는 곳에 있는 열결혈을 취할 것이니 이 락맥은 여기서 갈라져서 양명으로 간다.

手少陰之別，名曰通里，去腕一寸半，別而上行，循經入于心中，繫舌本，屬目系。其實則支膈，虛則不能言，取之掌後一寸，別走太陽也。

수소음경의 별락을 통리라고 하니 완관절에서 1촌되는 곳에서 갈라져서 상행하여 소음경맥을 따라 심중으로 들어가고 다시 상행하여 설근에 연결되고 목계에 속한다. 이 락맥에 사기가 실하면 흉격을 지탱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정기가 허하면 말을 하지 못하니 손목 뒤 1촌되는 곳에 있는 통리혈을 취할 것이니 이 락맥은 여기서 갈라져서 태양으로 간다.

手心主之別，名曰內關，去腕二寸，出于兩筋之間循經以上，繫于心包，絡心系。實則心痛，虛則爲頭強，取之兩筋間也。

수심주의 별락을 내관이라고 하니 완관절 상 2촌에서 양근 사이에서 나와 갈라져서 수소양경으로 달려가고 수궤음경을 쫓아 올라가 심포에 연결되고 심계에 낙한다. 이 락맥에 사기가 실하면 심통하고 정기가 허하면 煩心하니 양근 사이의 내관혈을 취한다.

手太陽之別，名曰支正，上腕五寸，內注少陰；其別者，上走肘，絡肩髃。實則節弛肘廢，虛則生肱，小者如指痲疥，取之所別也。

수태양경의 별락을 지정이라고 하니 손목이 5촌되는 곳에서 속으로 들어가 수소양경에 주입된다. 갈라져 나온 것은 위로 올라가 팔꿈치를 지나 견우혈에 낙한다. 이 락맥에 사기가 실하면 골절이 이완되고 주관절이 위축되어 움직이지 못하며 정기가 허하면 피부에 사마귀가 생겨 자잘한 것이 손가락 사이에 생기는 물혹과 같으니 본경에서 갈라지는 지정혈을 취한다.

手陽明之別，名曰偏歷，去腕三寸，別入太陰；其別者，上循臂，乘肩髃，上曲頰偏齒；其別者，入耳合于宗脈。實則齟齬，虛則齒寒痺隔，取之所別也。

수양명경의 별락을 편력이라고 하니 완관절상 3촌에서 갈라져 수태음경으로 간다. 갈라진 것은 팔뚝을 따라 올라가 견우혈을 타고 곡협으로 올라가 치아에 두루 분포한다. 갈라진 것은 귀로 들어가 종맥과 합쳐진다. 이 락맥에 사기가 실하면 이가 썩고 이룡이 생기고 정기가 허하면 이가 시리고 흉격이 막혀 불편하니 본경에서 갈라지는 편력혈을 취한다.

手少陽之別，名曰外關，去腕二寸，外繞臂，注中，合心主。病實則肘攣，虛則不收，取之所別也。

주소양경의 별락을 외관이라고 하니 완관절상 2촌에서 밖으로 팔뚝을 돌아 흉중에 주입되어 심주와 합한다. 이 락맥이 실하게 되면 팔꿈치가 당기고 정기가 허하게 되면 팔꿈치가 이완되어 거두지를 못하니 본경에서 갈라지는 외관혈을 취한다.

足太陽之別，名曰飛陽，去踝七寸，別走少陰。實則鼯室頭背痛，虛則鼯衄，取之所別也。

족태양경의 별락을 비양이라고 하니 외과상 7촌에서 갈라져서 족소음경으로 간다. 이 락맥에 사기가 실하면 코가 막히고 머리와 등이 아프며 정기가 허하면 코가 막히고 코피가 나니 본경에서 갈라지는 비양혈을 취한다.

足少陽之別，名曰光明，去踝五寸，別走厥陰，下絡足跗。實則厥，虛則痿躄，坐不能起，取之所別也。

족소양경의 별락을 광명이라고 하니 외과상 5촌에서 갈라져서 결음으로 가고 족소양경과 병행하여 아래로 내려가 발등에 낙한다. 이 락맥에 사기가 실하면 하지가 냉하고 정기가 허하면 하지가 무력하여 걷지 못하고 앉았다가 일어나지를 못하니 본경에서 갈라지는 광명혈을 취한다.

足陽明之別，名曰豐隆，去踝八寸，別走太陰；其別者，循脛骨外廉，上絡頭項，合諸經之氣，下絡喉咽。其病氣逆則喉痺瘁瘡，實則狂顛，虛則足不收，脛枯，取之所別也。

족양명경의 별락을 풍릉이라고 하니 외과상 8촌에서 갈라져서 태음으로 간다. 갈라진 것은 경골의 외측 모서리를 따라 위로 올라가 두항(頭項)에 낙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경맥지기와 합하여 아래로 내려와 인후에 낙한다. 이 락맥이 병들어 사기가 역상하면 목구멍이 부어 폐색되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며 사기가 실하면 전광증이 생기고 정기가 허하면 발이 늘어져 거두지를 못하고 정강이가 마르니 본경에서 갈라지는 풍릉혈을 취한다.

足太陰之別，名曰公孫，去本節之後一寸，別走陽明；其別者，入絡腸胃。厥氣上逆則霍亂，實則腸中切痛，虛則鼓脹，取之所別也。

족태음경의 별락을 공손이라고 하니 본절의 뒤 1촌되는 곳에서 갈라져서 양명으로 간다. 갈라진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腸胃에 낙한다. 결기가 상역하면 괄란이 되고 사기가 실하면 뱃속이 끓어지듯이 아프며 정기가 허하면 고창이 되니 본경에서 갈라지는 공손혈을 취한다.

足少陰之別，名曰大鍾，當踝後繞跟，別走太陽；其別者，并經上走于心包，下外貫腰脊。其病氣逆則煩悶，實則閉癰，虛則腰痛，取之所別者也。

족소음경의 별락을 대종이라고 하니 족내과의 뒤에서 발뒤꿈치를 돌아 갈라져서 족태양경으로 간다. 갈라진 것은 족소음경과 병행해서 올라가 심포에 주입된 후에 아래로 내려와 요척을 꿰뚫는다. 이 락맥이 병들어 사기가 역상하면 흉중이 번란하고 답답하며 사기가 실하면 소변불통 혹은 불리하며 정기가 허하면 허리가 아프니 본경에서 갈라지는 대종혈을 취한다.

足厥陰之別，名曰蠡溝，去內踝五寸，別走少陽；其別者，經脛上臑，結于莖。其病氣逆則臑腫卒疝，實則挺長，虛則暴癢，取之所別也。

족궐음경의 별락을 여구라하니 내과상 5촌에서 갈라져 소양경으로 간다. 갈라진 것은 경맥을 따라 고환으로 올라가 음경에서 뭉친다. 이 락맥이 병들어 사기가 역상하면 고환이 붓고 갑자기 산증이 생기며 사기가 실하면 음경이 발기하고 정기가 허하면 갑자기 가려우니 본경에서 갈라지는 여구혈을 취한다.

任脉之別，名曰尾翳，下鳩尾，散于腹。實則腹皮痛，虛則癢搔，取之所別也。

임맥의 별락을 미예(≡구미)라고 하니 구미로 내려와 배에 흡어진다. 사기가 실하면 뱃가죽이 아프고 정기가 실하면 가려워 긁으니 본맥에서 갈라지는 미예혈을 취한다.

督脉之別，名曰長強，挾脊上項，散頭上，下當肩胛左右，別走太陽，入貫膂。實則脊強，虛則頭重，高搖之，挾脊之有過者，取之所別也。

독맥의 별락을 장강이라고 하니 척추를 끼고 목으로 올라가 머리위에서 흡어지고 아래로 내려와 견갑의 좌우에서 갈라져 족태양경으로 가서 척추를 꿰뚫고 들어간다. 사기가 실하면 척추가 뻣뻣해지고 정기가 허하면 머리가 무겁게 되니 환자의 머리를 요동시키면 척추를 끼고 병변이 나타나니 본맥에서 갈라지는 장강혈을 취한다.

脾之大絡，名曰大包，出淵腋下三寸，布脅。實則身盡痛，虛則百節盡皆縱，此脈若羅絡之血者，皆取之脾之大絡脈也。

비의 대락을 대포라고 하니 연액혈아래 3촌에서 나와 흉협에 퍼진다. 사기가 실하면 온몸이 다 아프고 정기가 허하면 온몸의 골절이 다 늘어지니 이 락맥은 아주 커서 각 락맥의 血을 싸고 있기 때문이니 모두 비의 대락인 대포혈을 취한다.